



‘고이노 오요구 마치’ 시초의 이야기

줄줄 흐르는 맑은 ‘물’.
그 물을 수놓는 형형색색의 ‘잉어’.

이 아름다운 광경은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가득
담아 만들어냈습니다.

전체 길이 100m의 수로를 살려 마을을 부흥시킬
수 없을까, 아이들의 풍요로운 마음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두 마음을 연결한 것이 ‘용수’와 ‘잉어’였습니다.

1978년 7월, 신마치 수로에 잉어를 방류했습니다.

그 후에도 마을조직을 중심으로 시마바라 시민의
도움을 받아 매년 5월에 ‘잉어’를 방류합니다.

물의 마을 시마바라를 아름답게 만드는 고이노
오요구 마치에서는 오늘도 잉어가 꼬리지느러미를
살랑이고 있습니다.



[교통 안내]

- 시마바라항—구마모토항 구마모토 페리/약 30분, 규슈 페리/약 60분
- 시마바라항—오무타시(미야케)항 고속선/약 50분
- 다이라항—나가사키항 아리야케 페리/약 45분
- 시마바라—후쿠오카 고속버스/약 3시간
- 시마바라—이사하야—후쿠오카 시마바라 철도/(급행) 약 50분~
이사하야역~JR/(급행) 약 1시간 45분

정 보



용수정원 시메이소

입관료 / 대인 400엔 · 소인 200엔
미취학 아동 무료
영업시간 / 9:00~18:00
휴관일 / 없음
문의처 / TEL 0957-63-1121



시마바라 용수관 (Koi카페 유스이칸)

입관료 / 무료
영업시간 / 9:00~18:00
메뉴 제공 시간 / 10:00~16:30 (주만 마감)
칸자라시 수제 체험은 3일 전까지의 예약제 (유료)
휴관일 / 없음
문의처 / TEL 0957-62-8102



관광교류센터 세이류테이

영업시간 / 9:00~18:00
휴관일 / 없음
문의처 / TEL 0957-64-2450

문 의

주식회사 시마바라관광뷰로

시마바라시 관광안내소 TEL. 0957-62-3986
시마바라역 관광안내소 TEL. 0957-63-6900
시마바라성 덴슈카쿠사무소 TEL. 0957-62-4766

2024년 1월 현재

나가사키 시마바라 Nagasaki Shimabara

고이노 오요구 마치 Koi No Oyogu Machi



[고이노 오요구 마치 걷기 지도]

시마바라시의 시내 중심부·신마치 일대에는 전체 길이가 100m에 달하는 수로로 물이 흐르는데, 그 수로에는 형형색색의 비단잉어가 방류되어 있습니다. 운치 있는 마을 안을 수놓듯, 물이 흐르는 수로에서 비단잉어가 우아하게 헤엄치는 모습은 물의 마을·시마바라를 대표하는 경관 중 하나입니다.

맑은 용수가 흐르는 풍경에 졸졸졸 물소리, 마음까지 씻겨내릴 듯한 산책 스폿입니다.



관광교류센터

清流亭

세이류테이

관광 안내, 휴식 공간 외에 현지 생산품 전시 판매도 하고 있으며, 여행 선물 찾으신다면 꼭 들려야 하는 스폿입니다. 연못 위에 지어진 건물에는 바닥이 유리로 된 구역이 있어, 발밑에서 헤엄치는 커다란 비단잉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메이소 입관권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국어 안내판 ①~⑱

‘세이류테이’를 비롯하여 ‘시마바라 용수관’ ‘시메이소’ 안과 주변 20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판은 일본어이지만 웹상에서 다국어 대응을 하고 있으며,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으로도 안내를 해 드립니다. QR코드와 NFC로 ‘일본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타이완 공용어’까지 5개 국어에 대응합니다.

시마바라 반도 무료 Wi-Fi

시마바라 반도를 찾아주신 국내외 손님이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Wi-Fi입니다.

지도의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회 최대 20분간(1일 12회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실 때에는 ‘메일 주소’ 또는 ‘SNS 계정’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清水館

시마바라 용수관

●일본 등록유형문화재

고이노 오요구 마치 중심부에 있는 무료 휴게소입니다. 쇼와시대 초기에 지어진 저택을 이용하여 만든 휴게소이며, 이곳에서는 시마바라의 용수를 사용한 전통 디저트 ‘간자라시’ 만들기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30분 정도.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간자라시’의 쫄깃한 찹쌀 경단과 달콤한 꿀도 맛보며 잠시 쉬어가세요. 산책 도중에 들르면 좋은 스폿입니다.



용수정원

四明荘

시메이소

●일본 등록기념물

●일본 등록유형문화재

고이노 오요구 마치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시메이소’. 1일 3,000톤의 용수를 뿜어내는 연못을 이용하여 지었으며, 일본의 등록유형문화재입니다. 용수 연못에서는 비단잉어가 우아하게 헤엄을 치고, 적송(赤松), 단풍나무 등의 울창한 나무가 계절의 색을 더합니다. 용수 연못이 너무나도 투명해서 ‘잉어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다’며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용수 연못 위에 설치된 틸타루에서는 땅 속에서 솟아나는 물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